

01 교회소식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신 것처럼, 주님 승천 이후 보혜사 성령을 보내심으로 다시 한번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02 생명의 말씀

‘십자가의 도’ 시리즈

예수님께서 뽀족한 남령이가 달린 채찍으로 온몸을 맞아 살이 찢기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과 연약함을 대속해 주셨다.

03 기획특집

우림북 주최 독후감 공모전 ‘대상’

‘내 신앙 상태를 어떻게 진단할 수 있을까?’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저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

04 간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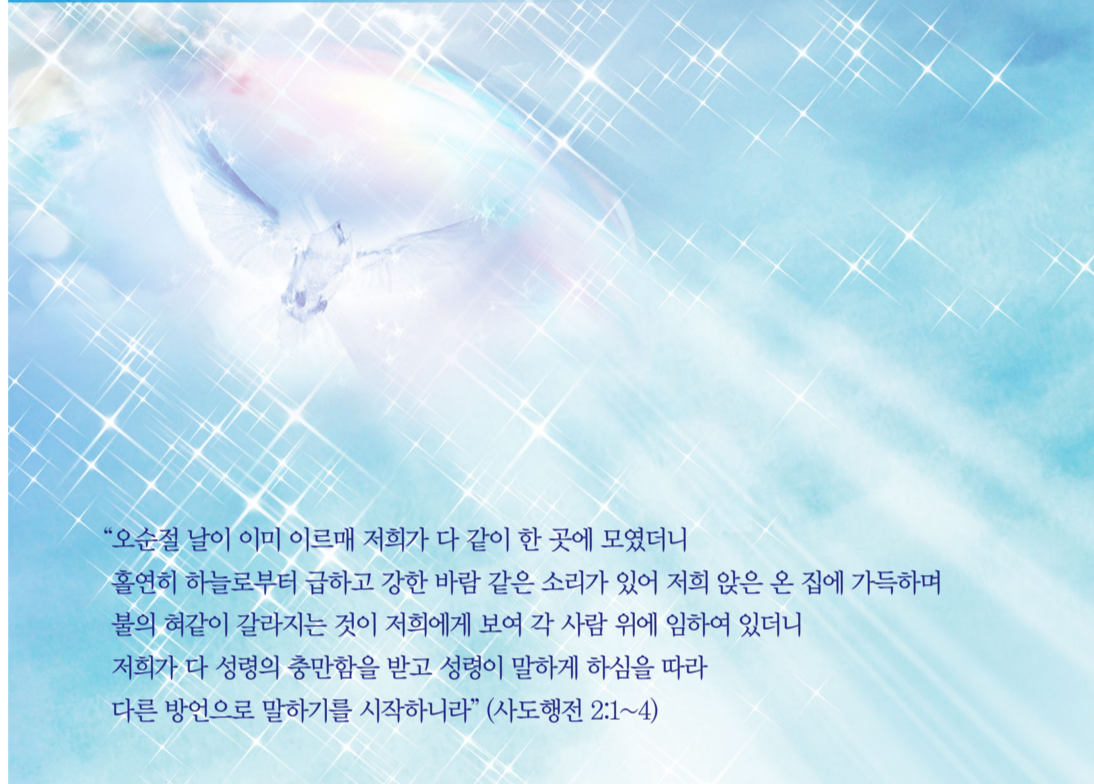
내 기도에 응답하신 좋으신 하나님

기도받은 뒤 만성 위축성 위염과 과증식성 용종을 치료받고 사시가 정상이 되는 등 국내외 성도들의 간증.

만민뉴스

제944호 2021년 5월 23일(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성령강림절을 맞아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사도행전 2:1~4)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 * 주님의 계명들을 지키려고 합니다.
- * 하나님 말씀에 즐겁게 순종하고 싶어집니다.
- * 깨끗한 삶을 살고자 합니다.
- * 신앙의 형제들을 깊이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 *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갑니다.
- * 구원의 확신이 생깁니다.
- *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생깁니다.
- *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게 됩니다.

GCN방송, 가정의 달을 맞아 어린이·어버이주일 프로그램 특별 편성



5월이 되면 우리 교회 곳곳에서는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행사가 치러진다. 해마다 아동주일학교 어린이주일 기념 예배 및 권사회에서 주관하는 어버이주일 행사 등 은혜로운 말씀과 다채로운 공연으로 행복하게 진행되는데,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GCN방송에서 특별 편성한 프로그램으로 이를 대신했다.

지난 5월 2일 주일 오후 1시 30분, GCN방송에서는 아동주일학교에서 제작한 ‘어린이주일 온라인 행사’가 방송되었다. 당회장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의 설교에 이어 교장 장성식 목사와 지도교사들의 축하 인사, 아동들의 간증과 주님께 드리는 사랑의 그림편지, 아동주일학교 행사 및 활동사진 등 다채롭게 제작되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선사해 주었다.

5월 9일 주일 1시 30분에는 ‘어버이 은혜’라는 어버이주일 특집이 방송되었다. 아나운서 김혜은 자매의 사회로 진행된 이 프로그램은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제작되었다.

당회장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의 설교와 더불어 부모님께 드리는 감사의 글, 예능팀들의 충만한 찬양과 무용, 그리고 각 가정에서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영상 등으로 진행되었다.

한편 어린이·어버이주일 프로그램은 GCN 위성방송, KT 올레TV 882, GCN방송 홈페이지와 모바일을 통해 방송되었다.



채찍에 맞고 피 흘리신 예수님



당회장 이재록 목사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벧전 2:24)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십자가를 지실 때가 되자 예수님께서서는 유대인들의 손에 잡히셨고 총독 빌라도의 재판정으로 넘겨지셨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 아무 죄가 없는 줄을 알았지만 군중들의 압력에 못 이겨 십자가에 못 박히게 내어 주고 말았지요.

예수님께서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로마 병사들에게 온갖 조롱과 멸시를 받으셨습니다.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의 뺨을 때리고 침을 뱉으며 뽀족한 납덩이가 매달린 채찍으로 온몸을 내리쳤지요.

채찍이 예수님의 몸을 휘감아 잡아챌 때마다 살이 찢기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 피가 흐르고 뼈가 드러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이사야 50장 6절에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라고 예언된 대로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서 이토록 혹독한 채찍을 맞고 피 흘리신 이유는 과연 무엇이며, 왜 이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까요?

1. 채찍에 맞고 피 흘리신 섭리

이사야 53장 5~6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찔리고 상하셨으며, 우리에게 평화를 누리게 하고 모든 질병에서 해방시키려고 징계를 받으며 채찍에 맞고 피 흘리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하시며 사람이 계명을 지키고 범죄하지 않으면 어떤 질병도 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질병을 치료받으려면 먼저 죄 사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치료해 주실 때 먼저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며 죄의 문제부터 해결한 뒤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

고 집으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 중풍병자가 온전케 되어 일어나 걷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요한복음 5장에는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신 뒤에 “보라 네가 나왔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셨습니다.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아 치료받았다 해도 다시 죄 가운데 살면 이전보다 더 심한 것이 생긴다고 알려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 질병의 근원은 죄의 문제에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질병으로부터 해방되려면 누군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하는데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를 흘려야 합니다(레 17:11). 그래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고 피 흘리심으로 모든 질병의 고통에서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때마다 짐승을 잡아 피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흠도 티도 없는 보혈, 능력의 피를 흘리신 뒤에는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거룩한 피로써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죄까지 모든 죄가 대속되었기 때문입니다.

2. 믿는다 하면서도 치료받지 못하는 이유

마태복음 8장 17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아 피 흘리신 이유를 알고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연약함이나 질병으로 고통받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도 “...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하며 완요형으로 표현한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고 피 흘리심으로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는 사실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치 않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와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을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애굽은 영적으로 세상을 말하며 출애굽 당시에 애굽에 내렸던 열 재앙은 세상의 모든 질병을 총칭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살면 어떤 질병에도 걸리지 않으며, 혹시 질병에 걸렸다 해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히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 편에서 자기 보기에 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행해야 한다 했습니다. 사람마다 그 의가 다른 것은 모든 사람이 태어나 자라면서 보고 듣고 배운 것이 다르고, 자란 환경과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의롭다 생각하는 일에 대해서도 저 사람은 불의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것만이 참으로 의로운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다른 아이에게 맞고 집에 들어오면 어떤 부모는 “너는 왜 맞고만 다니니? 한 대 맞으면 두 대, 세 대를 때려 줘야지!” 하고 가르칩니다. 또 때린 아이의 부모에게 가서 따지기도 하며, 꼭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속으로 몹시 속상해하거나 분히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하시며 선으로 악을 이기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화평해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 보시는 의와 사람이 보는 의는 전혀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서 노력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성령의 도움으로 능히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어떠한 질병도 틈타지 않습니다. 설령 질병에 걸렸다 해도 그것을 치료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지 못한 것을 발견해 마음 중심으로 회개하면 깨끗이 치료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김진홍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마을버스**
 - 금천 07번(교회앞 하차)
-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 문의: 차량국(02)818-7391~3

|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 |
|--------------------|----------------------------|
| 주일 대예배 | 1부 10:00 AM 2부 11:30 AM |
| 주일 저녁예배 | 3:00 PM |
| 주일 빛과소금선교회 예배 | 9:00 PM |
| 주일 빛과소금선교회(요식업) 예배 | 11:00 PM |
| 금요철야예배 | 11:00 PM |
| 수요예배 | 7:00 PM |
| 화요찬양예배 [청년·가나안] | 8:30 PM |
| 수요찬양예배 [빛과소금] | 9:00 PM |
|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 4:00 PM |
| 다니엘철야 기도회 |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
| 새벽예배 |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5609

우리은행 1002-459-392191 (예금주 박정길)

역대하 16장을 보면 원래 하나님을 잘 섬겼던 아사왕이 마음이 변질되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죄의 담을 쌓아감으로 발에 심히 중한 병이 들었습니다. 그는 이때라도 통회자복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하는데 여전히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을 의지함으로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만 막상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병이 났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존한다면, 이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

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듣고 알아도 계명을 지키며 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중심에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위로부터 치료받을 수 있는 영적인 믿음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받았으니 이제 어둠에서 나와 빛 가운데 행해 나가면 하나님과의 사이에 막힌 죄의 담이 헐어지고, 그것이 헐어지는 만큼 내 안에 믿어지는 믿음이 오며, 이 믿음이 오는 만큼 범사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서는 채찍에 맞아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과 연약함을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사랑을 온전히 믿음으로 더 이상 '나는 연약하다. 아프다' 부정적인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해 '강건하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치료의 주님을 만나 강건한 축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의 계명을 열심히 지켜 행하고 범사에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항상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림복 주최 독후감 공모전



뉴노멀(New Normal) 사회 현대인의 신앙생활 청진기



김형준 형제 (3청년선교회)

주변 사람에게 신앙인으로서 나의 모습이 모순되어 보이지 않게 노력해 왔다. 소위 '교회 다니는 사람'에 대한 일정 기대치가 있는 사람들에게 최소한 사회 통념상 도덕과 양심, 교양에 있어서 뒤처지지 않고 싶었다. 내가 선택해 믿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라는 말을 듣는다면 내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다 어느 날, 직장 동료가 질문을 던졌다. "교회 왜 다녀요?" 뭐라고 답할지 난감했다. "천국 가려고요"라는 전형적인 대답은 내 마음에 들지 않았다. "착하게 살려고요" 만족스럽진 않지만 회사에서 긴 설교를 하기 싫어서 이렇게 마무리해 버렸다.

그런데 그 대답 이후에 고민이 시작되었다. 현답이 무엇이 있을까 떠오르지 않았다. '나는 교회를 왜 다니지?', '나는 하나님을 왜 믿지?' 스스로 묻고도 명확히 답할 수 없었다. 어느 날, 손양원 목사의 일화를 읽을 때 내 자신이 부끄러웠다.

일제의 신사참배에 거부하고, 두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용서하고 양아들로 맞이했던 다음과 같은 그의 신앙적 원칙을 접하면서 말이다. "나는 예수 중독자가 되어야 하겠다. 술 중독자는 술로만 살다가 술로 죽게 되는 것이고, 아편 중독자는 아편으로만 살다가 아편으로 죽게 되나니, 우리도 예수의 중독자 되어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죽자. 우리의 전 생활과 생명을 주님을 위해 살면 주같이 부활된다. 주의 종이니 주만 위해 일하는 자 되고 내 일 되지 않게 하자" 내 삶을 되돌아 보았다.



일제 총칼의 위협 앞에서 내 신앙을 지키려 신사참배를 거부할 수 있을까? 손 목사와 같은 순교의 피로 번영을 이룬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만일 신앙적 가치관을 지키는 과정에서 불이익이 가해졌을 때 감사히 받아들일 수 있을까?

신앙인의 '모습'은 갖추려 했지만 참된 '마음'을 함양하지는 못했던 내 자신이 민망했다. 진리에 부합한 삶을 살기 위한 '행동'보다도 어떠한 환경에서도 변치 않는 그리스도인의 '마음', 즉 주를 향한 생명 다한 사랑으로 주변의 어떤 영혼이라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르쳐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하기 위해 예배, 찬양과 기도 속에서 그분을 만나야 했다. 교회에 다니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한 적절한 답변은 '주님에 대한 사랑'인 것이었다.

조직에서 경영 목표 설정 후 정기적으로 중간 진척도를 확인한다. 정부나 회사 조직의 실적 목표부터 시작해 가깝게는

개인 인생 목표도 있다. 특히 그리스도인은 주의 재림을 기다리며 천국 소망으로 살아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세상의 참된 빛과 소금이 되고자 한다. 주일 성수와 십일조에 힘쓴다. 앞서 말한 내용을 실천하고 있다 하더라도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자신할 수 있는가?

지난해 2020년부터 이어진 코로나19 상황으로 주일마다 교회에 나가 예배하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기존의 일상을 멈추고 1년여 기간 집에서 예배하고 있다. 초기에는 다른 성도들과 교제를 당분간 할 수 없어 아쉬웠으나, 시간이 갈수록 매너리즘에 빠지는 나를 보았다. 주일이면 교회에 갔던 것처럼, 주일에 집에서 예배시간 PC를 켜는 행동이 습관처럼 변해가는 것을 느끼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내실 있는 신앙생활이 무엇일까? 내 신앙상태를 어떻게 진단할 수 있을까?'

이 책에서 바로 위 질문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있다. 외형에 치중한 신앙생활이 아닌, 하나님의 넓고 오묘하신 뜻을 깨닫고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주님의 아름다우신 마음을 닦아가는 본질적인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인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와 절제 각 항목에 대한 설명, 성경 구절을 성령의 감동으로 풀어낸 저자의 깊은 통찰이 쉬운 이해를 돕는다. 이는 지금과 같은 마지막 때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며 내 신앙의 현 위치를 파악하고 노력하여 더욱 주님의 마음을 닦아가며 결실을 맺는 방법을 제시한다. 습관을 좇는 신앙생활이나 사람의 기준 '의' 보다는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맺기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의, 선, 사랑, 진실을 행하도록 돕는 현대인 신앙생활 지침서로 삼을 만하다.

마지막으로, 많은 여운을 남기는 책 속 저자의 한 고백을 남긴다. 저자가 목회자로서 어떤 가치관으로 성도를 대하는지 느낄 수 있고, 그가 설명하는 영적인 '사랑'이 함축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예전에 제가 성도들 앞에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 천 명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내가 대신 지옥에 가야 한다 해도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입니다."

이 세상 어느 믿는 이가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지옥에 가고 싶다고 말할까? 그것도 하나님과 깊이 교통하며 이 저서와 같은 말씀을 풀어낸 저자가 말이다.

“만성 위축성 위염과 과증식성 용종을 치료받았습니다”

윤금옥 집사 (75세, 중국 2교구)



저는 오래전부터 약간의 속 쓰림과 소화불량 증상이 있었으나 건강에 크게 이상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25일 건강검진 시 위내시경 검사 결과, 만성위축성 위염과 과증식성 용종이 있다는 소견을 들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서는 위암으로 진행될 수 있으니 신속히 자녀들에게 알리고 큰 병원에 가서 절제 수술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조금도 걱정되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그런 담대함이 주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이번 기회에 믿음으로 치료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1차 당회장님 저서 읽기’ 행사가 시작되었을 때 기쁜 마음으로 동참한 저는 10권을 완독함과 동시에 믿음 성장에 대한 사모함과 뜨거움이 이전보다 더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은 대학병원에 수술 예약을 해놓았지요. 저는 매일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ARS(자동응답

서비스 02-830-5320) 환자기도를 3번씩 받으며,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셔서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검진 결과가 나올 거라고 주변에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4월 12일(월), 수술하기 바로 전날이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당회장님의 자동응답서비스 환자기도를 3번 받고 설교를 듣고 있던 중, 갑자기 화장실에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까만 것을 많이 배변한 것입니다. 저는 그 순간 치료받았다는 확신이 들면서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날 병원에 입원한 저는 그다음 날인 4월 13일(화),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 놀라운 결과를 듣게 되었습니다. 위내시경 검사 결과, 놀랍게도 위가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담당 의사선생님께서서는 이상하다는 듯 고개를 갸우뚱하셨지요. 그리고는 제게 예수님을 믿느냐고 물어 보셨습니다. 제가 “예, 믿습니다”라고 대답하니 고개를 끄덕이셨지요.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 뒤 저는 성령 충만하며 아주 행복합니다. 제가 만난 이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요. 치료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제 오른쪽 눈의 사시가 정상이 되었어요”

파비올라 소도 아동 (8세, 베네수엘라 빠나메리카노 만민지성전)



저는 태어날 때부터 오른쪽 눈에 사시가 있었습니다. 제 눈동자가 많이 돌아간 모습을 보며 저는 너무나 슬펐고, 남들과 다른 제 눈 때문에 사진 찍는 것도 싫었습니다. ‘나도 다른 아이들처럼 눈동자가 앞을 똑바로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늘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제게 소망이 생겼습니다. 저희 가족이 빠나메리카노 만민지성전에 출석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치료 받은 성도들의 간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 뒤로 저는 하나님께서 제 오른쪽 눈을 치료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했는데, 엄마가 한국에 계신 만민기도원 이복님 원장님께서 랜선으로 은사집회를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오른쪽 눈을 치료받기 위해 기쁜 마음으로 정성껏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는 제게 ‘나도 치료받을 수 있다’는 꿈과 믿음을 더해 주셨지요.

3월 8일 은사집회 날,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으로 한국에서 원장님께서 기도해 주실 때 제 몸에 불이 임한 것같이 뜨거웠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이지요.

다음 날 아침, 엄마는 제게 눈을 감박여 보고 좌우로 움직여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놀랍게도 제 오른쪽 눈이 이전과 달리 옆으로 돌아가지 않고 똑바로 보고 있었지요. 저는 너무나 기뻐고 아빠, 엄마도 아주 행복해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 계셔서 제 기도를 다 듣고 계셨던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원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 기도받기 전

-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일아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변영로 34 ☎041)881-7000, 010-3030-7025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김해만민성결교회 경남 김해시 삼정동 43-15 메디피아 4층 ☎010-6218-0703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054)281-2468, 010-9773-7017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마산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30-6 ☎010-8741-2073
 - 목포만민교회 전남 목포시 상동 비파로 135-1 2층 ☎010-6507-753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대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51)805-3898, 010-9140-4194
 - 사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엄사면 향한리 374 ☎042)841-0091, 010-7195-1099
 - 세산만민성결교회 충남 서산시 무학로 1895 ☎010-6306-9798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만리공원길 7-1 3층(교동) ☎033)637-0271, 010-7733-1327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길 27 ☎070-4028-2515, 010-2536-2515
 - 순천만민성결교회 전남 순천시 장평길 13 2층 ☎010-6803-7266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권곡동 552-26(청운로 129) ☎041)546-1537, 010-2672-0244
 - 여수만민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영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5길 57 1층 ☎010-5510-6300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063)853-0675, 010-3637-0263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철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제주만민교회 제주시 절물 2길 32 해피하우스 701호 ☎064)712-0058, 010-2689-2332
 - 진주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안길 17, 2동 3호 ☎055)852-5815, 010-9196-3927
 - 천안만민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1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가락길 71 ☎043)293-7077, 010-8291-7173
 - 춘천만민성결교회 강원도 춘천시 옥산포길 17-7 ☎010-2090-7710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용산동 1210 ☎043)845-0617, 010-2447-9217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2290-1856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도로 112, 5층 ☎010-5611-7254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7736-9333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아탑로 95 ☎010-2201-0542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문로 150번길 26 2, 3층 ☎031)202-8480, 010-4820-1700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2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7773-0357
 - 영종도지성전 인천광역시 중구 은하수로 351 832동 402호 ☎010-5611-7254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4710-9649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이섭대천로 1177번길 12 ☎031)635-9103, 010-2201-0542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120 백세빌딩 10층 ☎032)863-9857, 010-5611-7254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B/D ☎031)905-2419, 010-4710-9649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효유빌딩 지하 ☎02)489-3766, 010-2201-0542
 - 검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완정로 162 ☎010-5611-7254